

“식품산업 혁신성장 메카 조성할 것”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전문인력 창출·입주기업 매출향상·기술지원체계 확대 키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9일 운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은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식품전문인력 창출과 입주기업 매출향상, 기술지원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기술지원, 벤처기업육성, 마케팅·물류지원, 산학연협력 등으로 분류된 33개의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입주기업에게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 전문육성기관을 통한 집중지원으로 클러스터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각종 행사 시 입주기업 홍보와 함께 국내외 판매중개인 초청 품평회를 통해 제품의 시장성 평가를 물론 발전방안 마련의 기회 제공에 주력한다.

아울러 생산품의 수출을 위한 각종 제반비용 지원, 6차산업과 연계된 체

험프로그램 마련, 법률·기술·금융·환경·노무 등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상담소·산학연오피스 운영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인턴직인 지원을 지난해 56명에서 95명으로 확대하고 12개팀이 창업지원팀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 수요가 많은 생산시설 구축, 신제품출시, 공정안정화 등 단계로기기술을 25건에서 50건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입주 기업에 대해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등록을 추진하고 식약처·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등의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윤 이사장은 “다른 산업단지과 차별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률에 대해서는 “2017년도 분양률은 50개사를 유



운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이 지난 9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궁면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치해 유치면적 대비 32.5%를 달성했다”면서 “올해는 50%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클러스터 2단계 착공과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분양률을 최선으로 다해 끌어 올려 이를 명분으로



전주상공회의소,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 실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9일 전주 신중상시장 일원에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의원 및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도내 각급 유관기관 관계자, 전주상의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매년 지역 상공인 및 유관기관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전주상의는 올해도 ‘제수용품 구입과 선물준비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는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

전통시장 현장 캠페인 ‘총력전’

전북중기청,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등 구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전통시장 활력 찾기 불 조성 선도를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상인회,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함께 6개조 220여명의 대규모 캠페인단을 꾸려 지난 9일 대형마트가 있는 도내 6개시(市) 곳곳에서 전통시장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단순 장보기가 아닌 전북중기청의 차별화된 명절맞이 캠페인(6회제)은 이미 전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모범사례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설을 앞두고 최강 한파로 인한 쇼핑불편과 소비자 외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진작과 대형마트 방문 고객들의 전통시장 유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효과적인 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협업 및 대형마트의 정책홍보 전달 및 솔선수범 전통시장 장보기 등이 조화된 캠페인을 구성했다.

캠페인 참여기관은 전북중기청을 비롯해 전북중소기업지원협의회(15개 단체), 전북기계공고, 지자체(6개시), 시장상인연합회(6개시), 소진공 지역센터(5개소) 등 30개의 기관·단체가

‘우든펜’ 롯데백 전주점서 판매

군산기계공고 학교기업 ‘우토리’ 서 제작

군산기계공고 학교기업 ‘우토리’에서 제작한 ‘우든펜’이 지난 9~10일 롯데백화점 전주점 1층 정문에서 판매됐다.

판매 제품은 ‘알렉산더 만년필’, ‘세도나 만년필’, ‘아르킬소제 활용 뷰티펜’, ‘젠들맨 수성펜’ 등 모두 학생들의 수작업으로 제작됐다. 판매 가격은 1만5천원부터 가장 비싼 것은 10만원이다.

우든펜은 학생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어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제품이라는,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었다.

군산기계공고는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나무를 소재로 샤프, 볼펜, 만년필, 연필꽂이, 독서대 등을 목공실을 활용하여 제작하여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완성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남품 업체를 선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의 품질인데, 군산기계공고 학생들이 만든 우든펜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제공했다는 것은 품질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장차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기계공고 학교기업 ‘우토리’는 지난 2012년 9월 군산기계공고 학생들의 자율 동아리로 출발해, 지금은 정규교육과정의 기초실습 과정과 연계하여 방과 후 특기적성 시간 및 자율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만년필, 수성펜, 볼펜, 샤프 등의 수제펜을 제작하고 있다.

최수규 차관, 익산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나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9일 오후 1시 익산에 위치한 귀곡속·보석가공 소공인 밀집지역을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와 신청을 독려했다.

이번 현장홍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밀집한 현장에서, 사업장 대표를 직접 만나 지원제도 설명과 신청, 접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수규 차관은 익산주얼리협동조합, (주)세광골드, (주)엔트러주얼리 등 귀곡속·보석 가공 소공인과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정부가 저소득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애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 농어촌공공, 사회복지시설·독거노인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지난 7일 좋은사람들 노인복지센터(내장동), 크로바실버빌(입안면 단곡리), 자애원(고부면 만수리) 및 정읍시 영원면 정제리 강정자(76세)의 3가구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고 위로 했다.

직원 10여명은 강정자 어르신께 등 방문하여 최근 한파에 따른 전기 및 수도, 보일러 등을 점검하고 주변에 눈치기 작업을 실시하여 도움을 주었다.

한편, 자애원 (원장 손정녀)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적으로 온정을 베풀어 주어 고맙다고 말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후원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금년에도 더욱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